

1년간의 비대면 유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정미란

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1년 동안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비대면으로 1년간의 유학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1년간의 비대면 유학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부분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사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기에, 한국에 있어도 문제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수업 중에서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주로 수강했습니다. 유학생 수업은 15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많았고,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한 유학생들과의 디스커션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 수업 중에는 '일본어 사정연습5A'나 '일본어연습4B'와 같이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의 학부생 수업과 같이 진행되는 수업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업에서는 일본인 학생들과 그룹으로 나눠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의견 교환을 하며 일본인 학생과 협력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인지 과제의 양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중에는 다른 유학생들과 같은 팀이 되어 수행하는 과제도 여러 개 있었는데, 시차나 네트워크 상태와 같은 문제로 연락을 취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에서 같은 그룹이 되지 않는 한 사적으로 연락할 일도 없었으며, 라인을 교환했어도 온라인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기에, 이러한 점이 비대면 유학의 가장 큰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본에 가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의 1년은 제게 있어 앞으로 다신 경험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사히 유학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제과와 하기와라 교수님, 마즈다 교수님 그리고 담당교관이셨던 모리야마 교수님을 비롯한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뜻깊은 1년을 잘 마무리 짓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학경험 레포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때 사용한 PPT



오차노미즈초등학교에 보낸 동영상





 お茶の水女子大学
Ochanomizu University

88 Interviewer ジョン・ミラン
教授にインタビュー
釜山外国語大学 日本語創意融合学部
澤井亮佑 教授

—まず、自己紹介をお願いします。

澤井(1978年3月8日)です。韓国に来て、今年(2021)20年目になりました。教員歴も同じ20年です。大学時代は、今の職業とまったく違う分野の日本民俗学というものを勉強しています。文化財とかお祭りとかそういう大衆の生活についての勉強をしていました。大学を卒業した後は、韓国に来て日本語の先生という職業を選んで大学院に入り、修士を終わってから大学の先生にデビューしました。

—韓国に来たばかりの時は驚いていました。日本と韓国の差に何か違いを感じましたか？

最初、日本の整ったことを考えて、早く応募した時には、毎日授業がある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整った時間、決まった時間に毎日授業があって、一時間ごとにクラスが変わるんですけど、その時間毎のこともまったく日本と同じだと思っていましたが、違いました。その差から「6時から授業があります」と聞いたので、夕方6時なんだろうと思ってオーケー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その頃、朝の6時だと知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仕事や学校に行くために勉強をしていく学生さんがいることに真面目だなと思うのと同時に朝から勉強大変だなと思いました。

—そうなんです。大学で勉強しながら感じた大学と整った違いには何かありましたか？

整ったのは学生の成績と関係なく和気藹々とできたので、20年経った今でも付き合いが多いです。大学の場合は、どうしても成績を付け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シビアな面がありますから、大学が学業は伸びなくても大学を卒業すると連絡取れなくなる学生がいますので、それがちょっと寂しいですね。

それから、性格の良さとは関係なく、大学ではできないところをより深々しないと成績を付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これはちょっと難しい面でもありますね。

Q. じゃ、《大学と整った》整え方にはどんな違いがありましたか？

今の大学では、私が今まで勉強してきた民俗学とか文化財とかそういうことを教える機会がありませんけど、整った時はとりあえず日本語をしっかりと教えるというイメージがありました。あんまり自由度がなく、教科書にあることを教えることに集中していました。

